



윌리엄스 감독

KIA, 꿀찌 추락 위기 ... 전략이 필요한 시기

T 타이거즈 전망대

부족한 전력을 채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KIA 타이거즈는 비로 한 경기를 치르지 못한 지난 주 2승 3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2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이의리의 5이닝 1실점 호투 덕분에 승리한 주를 시작했고, 4일에는 LG를 상대로 9회 말 끝내기 승리를 장식했지만, 승보다 패가 많았다. 특히 5일 2-8 패배 후 6일 경기에서는 0-10 영봉패를 당하면서 일요일 10연패가 기록됐다. 9일 한화에 반 경기 차로 쫓기는 KIA는 이번 주 대구에 이어 사직을 방문해 원정 6연전을 치른다. 10위 롯데와도 두 경기 차밖에 나지 않는 만큼 주말 3연전 결과에 따라서는 최하위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 팀 내부 상황도 좋지 않다. 팀의 4번 타자이자 '최고참' 최형우가 복귀했지만 '에이스' 브룩스가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했다.

대구·사직 원정 6연전 ... 한화에 반경기·롯데에 2경기 차 쫓겨 이의리-차명진-임기영-김유신-이민우 선발 불안 불펜 역할 커져

맹던도 복귀 준비 중인만큼 KIA는 '원투펀치' 없이 6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기존 선발진에 두 명의 선발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비상 상황이다. KIA는 8일 '특급 루키' 이의리를 선발로 내세워 삼성 백정현을 상대한다. 화요일 경기엔 나선 선발이 일요일 경기까지 동시에 소화하지만, 프로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의리는 이닝과 투구수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이에 맞춰 13일에는 대체 선발이 투입될 예정이다. 13일 자리를 채워도 선발 한 자리가 남는다. 남은 자리는 차명진이 책임질 예정이다. 로테이션상으로는 이의리-차명진-임기영-김유신-이민우 그리고 대체 선발로 한 주를 꾸려가게 된다.

'이닝'이 숙제이자 키워드다. 새로운 선발 차명진을 제외한 4명의 선발이 지난 주 책임진 이닝은 18이닝에 불과했다. 임기영이 6이닝을 소화했고, 이의리는 5이닝 78구에서 등판을 끝냈다. 김유신과 이민우는 각각 3.1이닝과 3.2이닝을 막는데 그치면서 KIA가 초반 싸움에서 밀렸다. 차명진이 '이닝'에 초점을 맞추고 선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재정비를 끝내고 돌아온 박준표도 마운드의 키다. 불펜이 바쁘게 돌아가야 하는 한 주, 박준표가 필요조로 활약했던 지난해 모습을 보여줘야 마운드에 숨통이 트인다. 현재 KIA에서는 시즌 전 베스트 멤버로 꼽혔던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SSG	50	29	0	21	0.0
2	LG	52	29	0	23	1.0
2	삼성	52	29	0	23	1.0
4	NC	51	27	1	23	2.0
4	두산	50	27	0	23	2.0
4	KT	50	27	0	23	2.0
7	키움	53	26	0	27	4.5
8	KIA	50	21	0	29	8.0
9	한화	51	20	0	31	9.5
10	롯데	51	19	1	31	10.0

나지완과 류지혁이 재할군에 있고, 외국인 '원투펀치'에 '마무리' 전상현까지 부상으로부터 빠져있다. 부상 변수 없이 100% 전력이라고 해도 KIA의 객관적인 전력은 '하위권'으로 평가된다. 얇은 선수층에 부상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불안정한 전력 탓에 1-2점 차의 박빙의 승부

가 이어지면서 피로도도 높다. 주중 어렵게 승리를 거두고, 주말에는 쉽게 패배를 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나마 버텨주던 브룩스까지 빠지면서 KIA는 주말 악몽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특별한 전력 강화 요인이 없는 만큼 '운영의 묘'가 중요한 '위기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와 벤치 멤버들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엔트리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답을 찾아야 한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작전과 선수들의 끈질긴 승부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마운드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견고하지 못한 선발진이 가동되는 만큼 적시 적소에 불펜진을 투입해 경기의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KIA가 위기의 순간을 경험이라는 자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벤치의 치밀하고도 과감한 전략이 필요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 올스타전 참가할 별은 누구?

'베스트12' 후보 KIA 12명 포함

KBO 올스타전에 참가할 '별들의 별'을 뽑는 투표가 14일 시작된다. KBO가 구단으로부터 추천받은 2021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후보 120명을 발표했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브룩스(선발투수) 이승재(중간투수) 정혜림(마무리) 한승택(포수) 류지혁(1루수) 김선빈(2루수) 김태진(3루수) 박찬호(유격수) 터커-이창진-최원준(이상 외야수) 최형우(지명타자)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오는 7월 24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은 나능 올스타(KIA, NC, LG, 키움, 한화)와 드림 올스타(두산, KT, 롯데, 삼성, SSG)로 팀을 나눠 진행된다.



최원준 정혜림

올스타 투표 후보 선수 120명 중 양 팀의 '베스트12' 총 24명이 선정된다. 또 투표로 선정된 베스트 선수 12명과 양 팀 감독이 정하는 감독추천선수 12명을 더해 팀별 24명의 선수로 구성된다. '베스트12' 중 투수는 선발, 중간, 마무리 3명으로 구분해 투표가 진행된다. 외야수 부문에서는 3명이 선정된다. 올 시즌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선수단 투표 없이 100% 팬 투표로 베스트 멤버가 가려진다. 투표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시작돼 7월 9일 오후 6시까지 26일간 진행된다. KBO 홈페이지와 KBO 공식 앱,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한SOL(솔) 앱에서 투표가 이뤄진다. 각 투표처에서 1일 1회씩 총 3번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 기간 중 매 주 월요일 중간집계 현황이 발표된다. 지난해 최다득표 타이틀을 차지한 롯데 마차도가 1997-1998년 삼성 양준혁에 이어 23년 만에 2

년 연속 최다득표에 도전한다. 2019년 팬 투표 최다득표 선수에 빛나는 LG 김현수도 개인 통산 9번째 '베스트12' 선정을 노린다. 지난해 '엔택트 올스타레이스'에서 우승하며 미스터 올스타로 뽑힌 NC 양의지도 '별들의 잔치'를 기다리고 있다. 2018년 MLB 올스타 무대를 밟았던 SSG 추신수는 KBO 리그 첫 올스타 무대에 도전한다. 추신수와 동갑내기인 '끝판왕' 삼성 오승환도 2013년 이후 8년 만에 올스타전에 노린다. 삼성 강민호는 전제 후보 중 최다인 11번째 '베스트12'에 도전한다. 역대 최다 올스타 선정 기록은 삼성 양준혁의 15회다. KBO리그 미래들도 다수 명단에 포진해 팬들에게 어떤 시간을 갖는다. KIA 2년 차 마무리 정혜림과 루키 이승재, SSG 최지훈, 롯데 나승엽, 삼성 김지찬, 한화 강재민 등 신예 선수들이 KBO리그 대표 스타들과 함께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KBO는 팬 투표에 참여하는 야구팬을 대상으로 무선 로봇 청소기, 무선 이어폰 등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정혜림, KBS배 육상 100m 허들 금메달

광주시청 금 3·은 1개 획득

'허들여제' 정혜림(광주시청)이 올시즌 첫 출전한 100m 허들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정혜림은 7일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 49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여자일반부 100m 허들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공식기록은 13초64로, 참가자 중 유일하게 13초대 기록을 유지했다. 2, 3위를 차지한 포항시청 조은주(14초13), 청양군청 임예름(14초43)을 가볍게 따돌렸다. 정혜림은 올시즌 처음이자 1년여만에 주종목인 허들경기에 나서 정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7월 제48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우승 이후 햄스트링이 좋지 않아 허들경기에 나서지 않고 컨디션 관리를 해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청은 정혜림의 금메달로 이번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따내 국내 최고 육상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정미가 400m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비롯해 4×400m혼성계주 한정미-이준-장지용-유지연이 우승했다. 여자일반부 200m에서는 유지연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정혜림이 지난 시즌 부상을 털어내고 이번 대회에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했다"며 "현재 몸 상태와 컨디션이 좋고 부상 염려도 없는만큼 다음 대회에서 기록에 도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오는 13일부터 익산에서 열리는 제50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기록 도전과 메달 사냥에 나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혜림

이정은, 뒤집기 실패 ... 고진영·박인비 공동 7위

LPGA US여자오픈 유카 사소 우승

2019년 3월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이던 박성현은 초청을 받아 필리핀 여자프로투어 대회인 더 컨트리클럽 레이디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했다. 이 대회에서 박성현은 예상대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마지막 날 후반 예상 밖으로 고전했다. 당시 박성현과 사를 동반 동반 플레이를 펼치며 마지막 날 한 타 차까지 따라붙고 최종 두 타 차로 준우승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아마추어 선수가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천재 골퍼'로 불리던 2001년생 유카 사소였다. 막판 실수로 우승은 놓쳤으나 세계랭킹 1위와

접전을 펼쳤던 사소는 2년여가 흘러 필리핀 골프 선수로는 남녀를 통틀어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역사를 만들었다. 사소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올림픽 클럽 레이크코스에서 막을 내린 제76회 US여자오픈에서 연장전 끝에 하타오카 나사(일본)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사소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하는 등 아마추어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선수다. 2019년 프로로 전향한 사소는 지난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뛰었는데, 8월에만 2연승을 거두 안착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엔 정식으로

입화하지 않은 가운데 4월 롯데 챔피언십에서 1-2라운드 선두에 오르고 최종 공동 6위에 자리한 그녀는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일을 냈다. 19세 11개월 17일의 나이로, 2008년 대회의 박인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US여자오픈 최연소 우승 타이 기록으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 우승으로 LPGA 투어 회원 자격을 얻게 되면서 사소는 이제 미국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기량을 펼쳐보이게 됐다. 한국 선수 중엔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과 세계랭킹 2위 박인비가 최종합계 1오버파 285타, 공동 7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남겼다. 공동 3위로 출발한 이정은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5타를 잃어 공동 12위(2오버파 286타)로 밀렸다. 김세영(28)은 공동 16위(4오버파 288타), 김효주(26)가 공동 20위(5오버파 289타), 유소연(31)이 22위(6오버파 290타)에 자리했다. /연합뉴스